

## <2> 방사선진료 환자와의 대화

명지종합병원

정 순 규

어떤 조직체이든 형태에 관계없이 목적성취를 기함에 있어서는 자금(money), 물자(material), 인력(man power)이라는 3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인력관리는 경영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병원의 인력구성은 타직종 어떤 분야의 조직체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

첫째, 여자(간호사)가 구성원의 주종을 이루고, 둘째, 학력의 격차가 아주 심하며, 셋째, 여러 전문직종들이 집합된 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직원간의 단순한 쌍방관계가 아닌 경영자와 직원 사이에 환자라는 별개의 개체가 연계되는 3자 관계이므로 높은 수준의 인력관리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요즈음과 같이 불신 내지 불친절의 악성이 가중되고 있는 병원가의 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영자와 직원간에 관한 인력관리기법에 앞서 직원과 환자사이에 진료업무와 관련한 관리기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사이, 간호사와 환자사이, 의료기사와 환자 사이, 행정요원과 환자 사이 등 고찰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므로 단번에 전체를 살펴보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선택한 고찰 부분이 방사선사와 관련한 patient care 중, 환자와의 대화에 관한 선례들을 나열·분석 해보고,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도움을 얻고자 한다.

환자의 질병치료에는 반드시 약물이나 수술 등으로만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따뜻한 한 마디의 말, 사랑이 담긴 대화, 환자의 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언행도 물리적 치료에 버금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입상에 임할 수 있는 자세확립을 위하여 환자관리에 적절한 언행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 <3> 방사선촬영에 있어서의 환자심리와 대응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이 창 업

최근에 patient care에 대해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식과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상황과 사람과의 대응에 따라 틀려서 그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Patient care에 있어서 방사선사는 환자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제 이행하므로써 의료현장에서

팀의료의 일원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Patient care는 실행해야 하며, 그 평가는 환자측에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상에서 X선 촬영을 한 환자가 과연 편안한 상태로 검사를 받고 있는지, 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몇 개의 설문을 앙케이트 조사로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였다.

X선 촬영시에 환자와 검사자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와 불안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1991년 12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서 수도권에 소재한 몇개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일반 X선 촬영을 한 환자와 검사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표 1. X선 검사시 불안여부

구분 \ 불안여부	병 원	보 건 소	계
불안감이 있었다.	318( 65.4%)	215( 63.0%)	533( 64.4%)
불안한 감이 없었다.	168( 34.6%)	126( 37.0%)	294( 35.6%)
응답자의 수	486(100 %)	341(100 %)	827(100 %)

응답자 827명 중에서 X선 검사를 한 환자의 64.4%가 X선 검사에 대해서 불안과 검사에 따르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표 2. X선 검사시 불안 내용

(괄호안은 %)

구분 \ 불안한 내용	병 원	보 건 소	계
1. 암이나 백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같다.	43( 13.5)	44( 20.5)	87( 16.3)
2. 임신불능이나 기형아가 출생될 위험이 있을 것 같다.	33( 10.4)	38( 17.7)	71( 13.3)
3. 신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07( 33.6)	74( 34.4)	181( 34.0)
4. 검사방법을 몰라서 불안하다.	56( 17.6)	25( 11.6)	81( 15.2)
5. 의료기기가 커서 불안하다.	7( 2.2)	6( 2.8)	13( 2.4)
6. 검사를 하는데 부끄럽다.	30( 9.4)	19( 8.8)	49( 9.2)
7. 촬영을 하는데 고통이 있었다.	42( 13.2)	9( 4.2)	51( 9.6)
계	318(100.0)	215(100.0)	533(100.0)

그 내역을 대변하면, 표 2와 같이 ①~③의 항목 즉 피폭에 관해서 불안을 느끼는 환자가 63.6%로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 비율은 질병이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병원보다는 건강진단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보건소에서 72.6%로서 병원의 57.5%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그 중에서도 X선을 조사하면 알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신체에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것 같다는 불안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막론하고 33.6~34.4% 정도로 가장 많았다.

④~⑥항목의 검사에 대한 불안은 26.8%이었으며, 보건소에서의 검사자는 23.2%인데 비해서

병원에서 촬영하는 환자는 29.2%로 많았다. 그 중에서도 검사법을 잘 몰라서 불안하다는 환자는 17.6%나 있었고, 검사를 하는데 따라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환자도 9.2%나 있었다. 여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⑦항목의 촬영을 하는데 따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환자도 13.2%를 차지하고 있었다.

#### <4> 방사선검사복의 착용에 대한 현황

동아대학교병원

오 문 영

방사선검사의 거의 대부분은 옷을 벗거나 까운을 입고 촬영을 해야하므로 때로는 환자에게 불쾌감과 불신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사는 촬영하는 부위와 옷을 벗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하여, 검사가 정확하게 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하고 인격존중은 물론 환자의 사적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까운이나 타올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내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검사복 준비 및 그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을 조사하고, 검사복의 형태, 재질, 종류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1. “검사복 준비는 항상하고 있다”는 병원이 92%로 가장 많았고, 그 외는 때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복 준비는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환자에 대한 반응으로 검사복이나 금속류가 없는 속옷을 입히는 경우(32%)와 원칙적으로 탈의시키나 환자에 따라 방사선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32%)가 꼭 검사복을 입히는 것(20%)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검사복 이용은 환자 1인에 한벌씩 사용하는 곳은 전혀 없었고, 한벌로 여러번 사용한다는 대답이 96%로 가장 높아 청결하고 위생적인 검사복 사용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4. 검사복을 종류 또는 크기별로 준비하기 보다는 “한 가지로 모든 환자가 사용한다”는 병원이 72% 대부분이었고, 남·여 구별없이 사용하는 병원이 많아(88%) 검사복이 검사복을 종류에 따라서나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 요구되었다.
5. 환자가 탈의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검사내용을 잘 설명하고 납득시킨다”는 대답이 88%로 가장 많아, 환자와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6. 간접촬영의 경우도 검사복을 입고 촬영하는 병원이 84%로 대부분이었으나 특별히 탈의시키지 않고 한다는 병원도 있어 검사복의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간접촬영에 있어서는 검사복 또는 속옷 1매만 입고 하는 병원(52%)이 꼭 검사를 입고 하는 병원(40%)보다 많았다.
8. 검사복의 종류는 옷옷식이 52%로 가장 많았고, Apron식(28%), T셔츠식(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복의 재질 또는 혼방(Polyestel+면)의 사용도 몇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은 면(92%)을 사용하고 있었다.
9. 검사복의 크기는 상반신과 전신용이 같은 비율로 많았고, 색상으로는 푸른색과 흰색, 분홍색, 기타로 조사되었다.
10. 기타 흉부 이외의 검사도 검사복을 준비하는 경우는 88%로 대부분이었고, 검사복의 종류는 2종류 또는 3, 4종류를 준비하고 있었다.